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을 중심으로

구본희* · 최무진**

〈 목 차 〉

I. 서론	4.1.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II. 이론적 배경	4.2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분석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문제점	4.3 인터넷 중독이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2. 인터넷 중독의 원인	V. 결론
2.3. 인터넷 중독과 정보 윤리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III. 연구방법	5.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3.1. 연구모형	참고문헌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Abstract
IV. 분석 결과	

I. 서론

초고속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의 양적성장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제 개인들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지식과 정보 습득, 인간관계의 형성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활속의 무한한 편의제공이라는 인터넷의 순기능 못지않게 인

터넷 중독, 게임중독, 인터넷을 통한 윤리적 일탈행위 등의 역기능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학계에서는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활용방안 모색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 관련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Young, 1996; Griffiths, 1999; 김혜원, 2001)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인구 통계적 특성, 부모 및 가정환경 관련특성 등에 따른 초·중·고생들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비교·분석하는데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연구대

*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통상과 겸임교수, ibgbh@yahoo.co.kr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choimjin@knu.ac.kr

상과 변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료 분석방법을 통하여 보다 차원 높고 폭넓은 실질적인 연구들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인터넷을 활용함에 있어,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 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Suler, 1996; Young, 1997; Griffiths, 1999, 이계원, 2001)는 일부 선행연구와 인터넷 중독이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nn & Sutton, 1998; 양돈규, 2000; 주정순, 2004)는 선행연구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보다 더 주체적·주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아특성과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자아특성과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대학생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가 자아정체성 확립 및 대인관계 형성이라는 Erikson(1963)의 연구와 자아 존중감·자기 통제감·자기 표현성 등의 자아특성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Young, 1996; Griffiths, 1999; 양돈규, 2000) 그리고,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성, 인터넷 공간에 대한 지각특성 등의 인터넷 인지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Suler, 1996; Young, 1997; 홍윤진, 2002)에 근거, 대학생들의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보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양돈규, 2000; 주정순, 2004)에 근거, 자아특성과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젊은 층이 겪고 있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의 긍정적 특성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문제점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1995년 심리학자인 Goldberg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Goldberg(1995)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정신 운동성 초조나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또는 백일몽)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 등의 증상으로 세분화 하였고, 아울러 인터넷 사용을 위해 사회적, 직업적 활동이 포기되는 사태가 12개월 내에 발생할 시에 이를 '인터넷 중독장애'라고 정의하였다.

Griffiths(1998, 1999)는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도박·과식·성행위·운동·TV 및 컴퓨터 게임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독 될 수 있으며, 이중 인터넷 중독은 약물 중독과 행동적 중독 가운데 행동적 중독에 해당된다고 분석하였

다.

인터넷 중독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중독적 행동양식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을 ‘사이버 섹스 중독(성인 채팅룸에서 만난 상대와의 온라인 섹스나 폰섹스 등에 탐닉하는 행위)’, ‘사이버 교제중독(가족이나 친구보다 이야기방 등에서 만난 사람과 더 친해짐)’, ‘인터넷 강박증(온라인 도박이나 경매 등에 탐닉)’, ‘정보중독(웹서핑이나 데이터베이스 탐색에 몰두)’, ‘컴퓨터 중독(컴퓨터 게임이나 새 프로그램에 탐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Young(1999)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과 초조감 같은 정서장애 등의 급단현상과 내성으로 인해 더욱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고, 반복적인 접속으로 인해 업무상의 소홀과 같은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개인의 일상생활 및 인간관계발달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Goldberg(1996)는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을 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수면장애, 결혼문제, 오프라인 친구의 감소, 학교와 직장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 등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Kraut(1998)는 인터넷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의사소통의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넘어서면 역으로 본질적인 사회활동을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스탠포드대학의 부설 연구소 보고서도

인터넷으로 인해 친구와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실제 인간관계의 단절 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Nie & Erbring, 2000).

2.2. 인터넷 중독의 원인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관련,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적 요인 및 가정·학교환경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 및 중독 정도의 차이를 규명해 왔다(김종원·조옥귀, 2002; 홍윤진, 2002). 다만 일부 연구(이계원, 2001; 이정연·최연성, 2002)는 자아특성과 대인관계성·대외활동성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 등의 문제도 결국 인터넷 공간과 인터넷 사용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사용자 개인의 사용행태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인터넷 사용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의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 특성(이계원, 2001; Griffiths, 1999; Young, 1998)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 및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인터넷 중독·정보윤리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2.1 인터넷 중독과 자아특성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 이정연, 최영선(2002)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향이 조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이 외부의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이를 조절해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Bach & Goldberg(1974)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활동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인터넷 중독의 한 원인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임을 감안할 때 (Young, 1996) 자기표현의 부족은 인터넷 중독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Kraut 등(1998)은 현실세계에서의 효능감이 높지 않다면 가상공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ogue(1995)는 자기통제를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인 충동성은 ‘지연된 큰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충동조절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자기통제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거식증이나 과식 등의 섭식행동, 약물중독, 성행동, 운동이나 교육 장면에서의 부정행위, 도박, 절도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김종원·조옥귀, 2001; 이계원, 2001)에 의하면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점수가 낮았다. 이는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인터넷

에 중독되기 쉬움을 의미한다.

상기의 기존 연구들에 근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자기표현성 등의 자아특성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2.2.2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인지특성

인터넷 이용자의 현실지각은 ‘인터넷상의 내용이나 매개경험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단기적인 현실구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이용수, 1999), 인터넷이 만든 ‘가상현실’이 얼마나 현실을 잘 묘사했느냐의 정도에 따라 이에 따른 현실 지각수준의 정도는 다를 것이며, 현실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깊이 몰입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홍윤진(2002)의 연구에서 가상공간에 대한 현실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활용특성과 관련,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및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성 등도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이계원, 2001). 홍윤진(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상공간에서 유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점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용자의 저항이 낮고 결과에 대한 효능기대가 높아져서 인터넷의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군은 비중독군에 비해 가상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현실사회의 친구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 중독군은 현실공간에서보다 가상공간 내에서 여러 행동

과 관계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지각하고, 가상공간 내에서 형성한 대인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현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성, 인터넷에 대한 지각특성 등의 인터넷 인지특성을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변수로 설정하였다.

2.3. 인터넷 중독과 정보 윤리

정보윤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정보윤리를 한 마디로 정의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학자들간에 명확한 개념상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정보윤리에 대한 연구가 윤리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컴퓨터 공학, 경영정보학 등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추병완(1997)은 “정보윤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병완의 개념정의의 중심으로 하여 정보윤리를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규범”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일상생활 즉, 직업적, 사회적, 그리고 학업적인 영역과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Bost

& Scherer, 1997; Brenner, 1997; Egger, 1996; & Young, 1998). 특히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행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울, 소외감, 고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학업소홀, 성적저하 및 높은 결석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Brady, 1996; Murphey, 1996; & Young, 1996),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비행과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양돈규·조남근, 2001).

즉 인터넷 중독이 개인의 정보윤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터넷 공간을 통한 각종 비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Mann & Sutton (1998)은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공간의 윤리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비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주정순(2004)은 조사대상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정보윤리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정상학생보다 중독학생이 불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이 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윤리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상기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론하고, 자아특성과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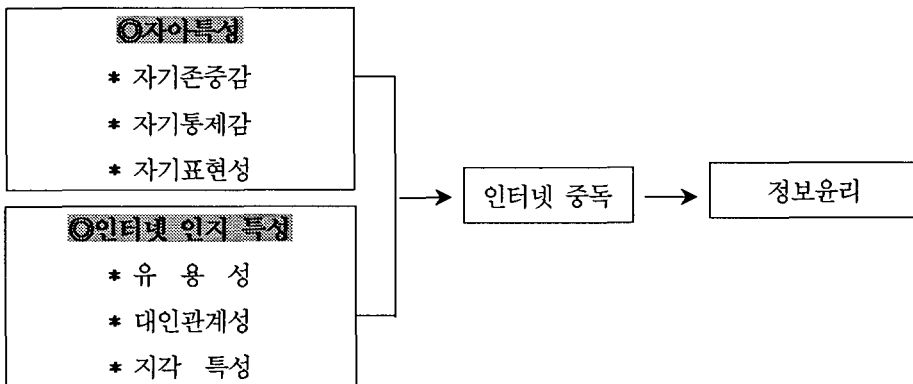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 관련 기존 연구들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특성 혹은 가정환경의 특성 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을 비교·분석하는데 다소 편중되어 있어 연구대상이 대학생 이상의 일반성인까지 확장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보다 주도적 영향집단으로 위치하고 있는 성인(대학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거쳐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일정부분 보완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포함된 요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나가 자아정체성 확립 및 대인관계 형성이라는 Erikson(1963)의 연구와 자아 존중감·자기 통제감·자기 표현성 등의 자아특성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Young, 1996; Griffiths, 1999; & 양돈규, 2000) 그리고, 인터넷 활용의 유용성,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성, 인터넷 공간에 대한 지각특성 등의 인터넷 인지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Suler, 1996; Young, 1997; & 홍윤진, 2002)에 근거, 성인들의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인터넷 중독이 정보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양돈규, 2000; 주정순, 2004; Mann & Sutton, 1998)에 근거하여 자아특성과 인터넷 인지특성 등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1 설문지 개발과 조사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한 설문지는 크게 5개 부문, 즉, 인구통계적 특성 관련항목(4문항), 자아특성 요인 관련항목(20문항), 인터넷 인지특성 요인 관련항목(19문항), 인터넷 중독 관련항목(20문항), 정보윤리 관련항목(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질문의 성격에 따라 명목척도와 리커트 5점 척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설문의 세부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설문구성<표 1>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중 자아특성은 안정성·목표지향성·자기 존중감·자기 표현성·자기 존재의식 등 다양한 하위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인터넷 인지특성은 인터넷 공간에 대한 현실지각 및 몰입·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인터넷의 익명성·인터넷 공간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 등의 하위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하위 구성요인중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은 Young(1999)이 고안한 5점척도의 인터넷 중독 검사항목들을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게 내성·부정적 결과·의존성 및 금단증상의 세부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정보윤리는 이춘우(2001)와 추병완(2001)이 개발·사용한 다차원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실태조사 항목들을 타인존중·책임성·건전성의 세부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5월 8일부터 15일간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 2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3, 4학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성인이므로 인격적으로 성숙될 가능성이 높은 3, 4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분석에 부적절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한 174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구성을 간략히 보면 3학년생이 102명, 4학년생이 72명이고, 남 : 여의 비율은 각각 95 : 79 명으로 구성되었다.

3.2.2 자료분석방법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분석 및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다수 항목으로 구성된 연구변수들의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 요소의 하부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값 1,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할 때 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Varimax 회전은 추출된 요인들을 이용하여 요인 점수들을 구하고 이를 회귀분석에 이용하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표 1> 설문문의 구성

연구 요인	구성개념	세부내용	문항 번호	관련 문헌
자아 특성	· 자기 존중감	· 자신의 성품, 인격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신뢰	I- 1~ I- 5	· Bandura(1993), Maddux & Scherer(1982)
	· 자기 통제감	· 자신의 이기심·감정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자율적 생활태도	I- 6~ I-12	· Logue(1995), Gottfredson & Hirschi(1990)
	· 자기 표현성	· 자신의 감정·생각등에 대한 솔직하고 적극적인 표현정도	I-13~ I-20	· Rathus et (1980), Whitehead(1991)
인터넷 인지 특성	· 인터넷의 유용성	· 인터넷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도	II- 1~II- 6	· 홍윤진(2002)
	· 인터넷을 통한 대인 관계성	·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적극적 교류정도	II- 7~ II-11	· 하지현 등(2000)
	· 인터넷 공간에 대한 지각성	· 인터넷 공간의 제 활동들을 실체처럼 인식하는 정도	II-12~ II-19	· Potter(1992) Biocca & Kim(1997)
인터넷 중독	· 내성	· 인터넷 사용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도	III- 1, 2, 16	· Griffiths(1999)
	· 부정적결과	·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생활의 장애	III- 5, 6, 8	· Young(1999)
	· 의존성 및 금단증상	· 인터넷을 현실도피처로 인식 하는 등의 지나친 의존현상	III- 3,4,7,9,10, 11,12,13, 14,15,17, 18,19,20	
정보 윤리	· 타인존중	· 인터넷 공간의 타인에 대한 언어예절 및 인사예절	IV- 1~4	· 추병완(2001)
	· 책임성	· 개인정보보호, 바이러스 및 해킹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IV- 5~10	· 이춘우(2001)
	· 건전성	· 불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	IV-11~14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α 값을 측정한다면, 각 요인들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3>, <표 4>은 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항목들의 그룹화가 당초 연구모형에서 제시하였던 변수들의 그룹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당초 자아특성을 구성했던 3가지 요인(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자기표현성)은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표현의 적극성’, ‘자기주장성’으로 재그룹화되었으며, 인터넷 인지특성을 구성했던 3가지 요인(유용성, 대인 관계성, 지각특성)도 ‘대인관계성’, ‘사용의 유용성’, ‘인터넷 몰입’, ‘인터넷 이해성’, ‘인터넷 실재성’, ‘인터넷 활용력’으로 요인들이 재그룹화되면서 요인 수도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의 정도, ‘대인관계성’은 인터넷을 통한 타인과의 원활한 교류 및 관계형성 정도, ‘사용의 유용성’은 인터넷이 업무나 학습에 유용한 정도, ‘자기통제감’은 자신에 대한 자제력과 자율성의 정도, ‘표현의 적극성’은 자기감정 및 의사표현의 적극성 정도, ‘인터넷 몰입’은 인터넷 이용 중 경험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몰입의 정도, ‘인터넷 이해성’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각종정보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의 정도, ‘인터넷 실재성’은 채팅 혹은 게임등의 활용시 실제처럼 느끼는 정도, ‘자기주장성’은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자기주장 경향, ‘인터넷 활용력’은 인터넷 활용 지식 및 활용정도를 의미한다.

<표 3>의 인터넷 중독의 경우 세부 문항구성차원에서 당초의 설정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와 <표 1>의 내성·부정적결과·의존성 및 금단증상의 구성요인이 생활의 장애·집착·내성의 구성요인으로 재그룹화 되었다. 여기서 ‘생활의 장애’는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대인관계·일상생활의 장애, ‘집착’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기대, ‘내성’은 인터넷 사용을 자신의 의지대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등을 의미한다. <표 4>의 정보윤리의 경우 당초 타인존중, 책임성, 건전성의 구성요인이 이용의 건전성·정보보호·책임감·타인존중의 세부요인으로 재그룹화 되면서 세 부문항 구성 및 요인수에서 <표 1>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서 ‘이용의 건전성’은 불건전 사이트 이용 및 인터넷의 과다사용에 대한 적절한 자기 통제, ‘정보보호’는 개인 정보 보호 및 해킹금지등에 대한 윤리적 태도, ‘책임감’은 프로그램의 다운로드·ID보호등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 ‘타인존중’은 인터넷 공간의 타인에 대한 적절한 예절등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구성개념상 다소 모호하게 그룹화 된 일부 문항들은 최종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개념적으로 설정한 변수들의 그룹과 통계적 분석 결과로 제시된 변수들의 그룹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2>, <표 3>, <표 4>에서 나타난 재구성된 설문 항목을 받아들여더라도 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추출된 요인들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연구변수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요인명 설문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10
	자기 존중감	대인 관계성	사용의 유용성	자기 통제감	표현의 적극성	인터넷 몰입	인터넷 이해성	인터넷 실재성	자기 주장성	인터넷 활용력
I - 5	.838									
I - 4	.795									
I - 2	.746									
I - 1	.730									
I - 3	.726									
II - 9		.805								
II - 10		.779								
II - 11		.759								
II - 8		.739								
II - 7		.526								
II - 4			.821							
II - 3			.807							
II - 6			.713							
II - 5			.711							
I - 8				.655						
I - 10				.637						
I - 12				.627						
I - 11				.602						
I - 9				.555						
I - 6				.538						
I - 19					.733					
I - 18					.647					
I - 20					.607					
II - 13						.842				
II - 14						.740				
II - 1						.602				
II - 16							.681			
II - 15							.629			
II - 17							.599			
II - 19								.843		
II - 18								.780		
I - 16									.663	
I - 17									.590	
I - 13									.571	
II - 1										.670
II - 2										.603
eigen 값	3.92	3.50	2.89	2.67	2.41	2.23	2.07	1.99	1.82	1.52
분산비(%)	10.06	8.97	7.41	6.86	6.19	5.73	5.31	5.11	4.68	3.91
신뢰도계수	.690	.645	.700	.693	.676	.686	.698	.723	.677	.675

<표 3> 연구변수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인터넷 중독)

설문항목	요인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생활의 장애	집착	내성
Ⅲ - 19		.765		
Ⅲ - 18		.758		
Ⅲ - 20		.755		
Ⅲ - 15		.754		
Ⅲ - 3		.750		
Ⅲ - 5		.638		
Ⅲ - 11			.796	
Ⅲ - 12			.700	
Ⅲ - 10			.675	
Ⅲ - 7			.611	
Ⅲ - 1				.892
Ⅲ - 2				.852
Ⅲ - 16				.626
Ⅲ - 17				.564
eigen 값		4.195	2.611	2.413
분산비(%)		29.966	18.647	17.235
신뢰도계수		.674	.682	.792

<표 4> 연구변수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정보윤리)

설문항목	요인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이용의 건전성	정보보호	책임감	타인존중
Ⅳ - 13		.832			
Ⅳ - 14		.784			
Ⅳ - 11		.763			
Ⅳ - 12		.742			
Ⅳ - 8			.830		
Ⅳ - 7			.799		
Ⅳ - 9			.698		
Ⅳ - 4				.655	
Ⅳ - 10				.613	
Ⅳ - 6				.601	
Ⅳ - 5				.573	
Ⅳ - 3				.560	
Ⅳ - 2					.775
Ⅳ - 1					.768
eigen 값		2.813	2.629	1.969	1.618
분산비(%)		20.095	18.780	14.067	11.554
신뢰도계수		.699	.614	.681	.675

4.2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분석

인터넷 중독과 다양한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표 3>에서 추출된 인터넷 중독 구성요인 즉, 생활의 장애, 집착, 내성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들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대인 관계성·인터넷 사용의 유용성·인터넷 공간의 실재성·자기 주장성은 생활의 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 존중감·대인 관계성·사용의 유용성·인터넷 실재성·인터넷 활용력은 인터넷에 대한 집착에, 대인 관계성·자기 통제감·표현의 적극성·자기 주장성은 인터넷에 대한 내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의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대인관

계성으로서, 인터넷 공간을 통한 활발한 대인 관계가 인터넷 중독의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결과 들은 현실상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표현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에 쉽게 빠져든다는 점(Suler, 1998), 가상공간에서 현실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점, 가상공간활동에 더 깊이 몰입할 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다는 점 (홍윤진, 2002; 하지현 등, 2000), 가상공간을 통한 대인 관계 형성에 더 적극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다는 점(이계원, 2001; 홍윤진, 2002) 등의 발견과 일치하였다. 즉 자기 주장성·자기 존중감·표현의 적극성·자기 통제감 등이 높을 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대인 관계성·인터넷 사

<표 5>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 (인터넷 중독)	독립변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회귀계수	t-value	유의수준
생활의 장애 $R^2 = .251$ $F = 6.757^{**}$	대인관계성	.190	2.186	.030**
	사용의 유용성	.135	1.758	.081*
	인터넷 실재성	.438	5.844	.000**
	자기 주장성	-.168	-2.045	.042**
인터넷에 대한 집착 $R^2 = .319$ $F = 9.068^{**}$	자기 존중감	-.329	-4.171	.000**
	대인 관계성	.274	2.973	.003**
	사용의 유용성	.146	2.001	.047**
	인터넷 실재성	.265	3.705	.000**
	인터넷 활용력	.188	2.527	.012**
인터넷에 대한 내성 $R^2 = .178$ $F = 4.736^{**}$	대인 관계성	.244	2.674	.008**
	자기 통제감	-.241	-2.918	.004**
	표현의 적극성	-.260	-3.106	.002**
	자기 주장성	-.250	-2.911	.004**

* $p < 0.1$, ** $p < 0.05$

용에 대한 유용성 인지·인터넷 공간의 실재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제도적 방안과 자아존중감·통제력·표현력 등의 자아특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제 방안들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완화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3 인터넷 중독이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거쳐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정보윤리 구성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과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및 인터넷 중독구성요인 모두를 독립변수로, 정보윤리 구성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표 6>는 유의한 변수들의 관계만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표 6>의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이 정보윤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Baron and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수(mediator)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종속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가 공변량으로 사용되었을 때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가 현저히 약화되어야 한다. 만약, 약화되는 정도가 매우 커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없어지면 완전 매개(full mediation)라고 부르고, 관계의 크기만 약화될 경우는 부분 매개

(partial mediation)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건들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모형1에 의하면, 자기 존중감·자기 통제감·표현의 적극성·자기 주장성·인터넷 실재성·인터넷 활용력 등의 변수가 정보윤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개변수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인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모형1의 설정에 매개변수인 인터넷 중독 구성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2에서는 인터넷 활용력·인터넷 실재성·자기 통제감 등을 제외하고는 모형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과 정보윤리간의 유의적 관계가 사라졌고 생활의 장애·내성·집착 등의 인터넷 중독 구성요인들과 정보윤리 구성요인 간에는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매개변수의 두번째·세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거쳐 정보윤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인터넷 사용에 있어 보다 영향력 있는 사용자 집단인 성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분석 및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

<표 6> 인터넷 중독이 정보윤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종속변수 (정보윤리)	독립변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회귀계수	t-value	유의수준
모형 1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R^2 = .164$ $F = 3.203^{**}$	자기 존중감	.229	2.556	.012 ^{**}
		인터넷 실재성	-.161	-1.979	.049 ^{**}
		인터넷 활용력	-.258	-3.066	.003 ^{**}
	정보보호 $R^2 = .218$ $F = 4.551^{**}$	자기 통제감	.135	1.684	.094 [*]
		표현의 적극성	.190	2.115	.033 ^{**}
		인터넷 실재성	-.416	-5.278	.000 ^{**}
	책임감 $R^2 = .174$ $F = 3.433^{**}$	자기 통제감	.353	4.156	.000 ^{**}
		자기 주장성	.168	1.890	.060 [*]
		인터넷 활용력	-.139	-1.662	.098 [*]
	타인존중 $R^2 = .087$ $F = 1.548$	인터넷 실재성	-.183	-2.149	.033 ^{**}
모형 2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R^2 = .304$ $F = 5.354^{**}$	자기 존중감	.134	1.647	.101
		인터넷 실재성	-.010	-.123	.902
		인터넷 활용력	-.201	-2.515	.013 ^{**}
		생활의 장애	-.271	-2.802	.006 ^{**}
		내 성	-.146	-.667	.097 [*]
	정보보호 $R^2 = .29$ $F = 5.206^{**}$	자기 통제감	.124	1.439	.152
		표현의 적극성	.133	1.609	.110
		인터넷 실재성	-.285	-3.423	.001 ^{**}
		생활의 장애	-.383	-3.940	.000 ^{**}
		내 성	-.187	-2.297	.023 ^{**}
	책임감 $R^2 = .214$ $F = 3.324^{**}$	자기 통제감	.311	3.602	.012 ^{**}
		자기 주장성	.111	1.235	.219
		인터넷 활용력	-.101	-1.181	.239
		내 성	-.177	-2.048	.042 ^{**}
	타인존중 $R^2 = .127$ $F = 1.778^*$	인터넷 실재성	-.151	1.528	.128
		집착	-.275	-2.461	.015 ^{**}

* $p < 0.1$, ** $p < 0.05$

리간의 관계분석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집단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분

석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대인 관계성·인터넷 사용의 유용성·인터넷 공간의 실재성·자기 주장성은 인터넷 중독 구성요인 중 생활의 장

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 존중감·대인 관계성·사용의 유용성·인터넷 실재성·인터넷 활용력은 인터넷에 대한 집착에, 대인 관계성·자기 통제감·표현의 적극성·자기 주장성은 인터넷에 대한 내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자기 존중감·자기 통제감·인터넷 실재성·인터넷 활용력 등의 변수들이 정보윤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거쳐 정보윤리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인터넷 중독 완화 및 정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는 요인들이 개인의 자아 존중감·자기 통제감인 바, 이를 배양할 수 있는 자아형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사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급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인관계 및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상담기법·자기표현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자가 현실과 가상공간을 동일시하는 가상공간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현실과 가상을 혼돈하게 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불건전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정보중심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대인들의 심정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및 상담기법 운영을 통해 현실공간의 대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부적절한 대인관계형성 및 몰입을 예방·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와 관련,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원인변수들이 제시되고 검증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그 원인이 되어 대인관계의 단절·학습 및 업무장애·일상생활의 부적응·왜곡된 성의식과 성문화 등 수많은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현재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 관련연구들이 직면한 중요한 한계점은 그 연구모형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들 간의 선·후행 관계 혹은 인과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도 그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 향후의 보다 많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의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연구의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세대별 차이와 그 원인분석 그리고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대상의 범위 확대 및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셋째, 최근 정보윤리 및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각급 공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윤리 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제공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고 향후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연구와 관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원인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기존연구 혹은 보고서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바,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다양한 원인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연구모형을 수립, 실증분석 함으로써, 다양한 원인변수들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변수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하였으나, 향후 연구변수를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한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매개변수인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및 전체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제혁, “사이버 공간의 현실지각 수준과 인터넷 몰입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종원, 조옥귀,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2호, 2002, pp. 477-500.

김진숙, “청소년의 PC중독 사례와 상담적 접근”, 청소년상담문제연구 보고서, 제39권,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2001, pp. 91-117.

송명준, 권정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현황 및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회 포스터 발표, 2000, pp. 78-92.

양돈규, “청소년의 감각추구 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연관성”,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2000, pp. 55-74.

양돈규, 조남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4권, 제1호, 2001, pp. 11-31.

오미경,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선결, “신경증적 경향성, 몰두성향, 가상공간의 현실지각수준과 인터넷 중독”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용수, “인터넷 이용자의 현실지각에 관한 연

- 구: 대학생의 이용동기·활동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정연, 최영선,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지, 제11권, 제4호, 2002. pp. 335-346.
- 이춘우, “정보화사회의 정보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남근, 양돈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주정순,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울력, 2001.
- 하지현, 양은주, 김영미, 장창곡, 우종인, 류인균,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제9권, 제1호, 2000, pp. 16-26.
- 홍윤진, “자기효능감과 가상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몰입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Bach, G., & Goldberg, H., *Creative Agression*, NY: Doubleday, 1974.
- Bandura, A., “Percieved sei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8, 1993, pp. 117-148.
- Baron R. M.,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ata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Issue 6, 1986, pp. 1173-1182.
- Biocca, F., & Kim, T., “Telepresence via television: The dimensions of Telepresence may have different connections to memory and persuasion,”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 3, 1997, pp. 127-142.
- Bost, J., & Scherer, K.,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1997.
- Brady, K., *Dropouts rise a net result of computers*, The Buffalo Evening News, 1996.
- Brenner, V.,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 Vol. 80, 1997, pp. 879-882.
- Egger, O., “Internet behavior and addiction: Unpublished thesis,” *Swiss Federal*

- Institute of Technology*, 1996.
- Erikson, E. H., "Identity: psychosocia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7, 1963.
- Goldberg, I.,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support-p.html>, 1995.
- Gottfredson, M., &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Griffiths, M. D., *Psychology and the internet*, Academic Press, 1998.
- Griffiths, M. D.,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Vol. 12, No. 5, 1999, pp. 246-250.
- Ketsetzi, M., Ryan, B. A., & Adams, G. R.,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hild characteristic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0, No. 2, 1998, pp. 374-387.
- Kraut, R., & Patterson, M.,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No. 9, 1998, pp. 1017-1031.
- Logue.,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1995.
- Maddux, J. E., & Scherer, M.,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Vol. 51, 1982, pp. 663-667.
- Mann, D., & Sutton, M. "Net crime: More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iev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8, No. 2, 1998, pp. 201-229.
- Murphey, B., *Computer addictions entangle student*, The APA Monitor, 1996.
- Nie, N. H., & Erbring, L.,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www.stanford.edu/group/siqss, 2000.
- Potter, W. J., "How do adolescents' perceptions of television reality change over time," *Journalism Quarterly*, Vol. 69, No. 2, 1992, pp. 392-405.
- Rathus, Spencer, A., & Jeffrey, S., *Adjustment and growth : The challenges of life*, New York : Holt, 1980.
- Suler, J.,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Rider Univ, Copyright, Aug, 1996.
- Whitehead, C., *So, what is assertiveness?: An assertiveness training course*, San Jose, Calif: Resource Publications, 1994.
-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1, No. 3, 1996, pp. 237-244.
- Young K. S., "Levels of depression and

addiction underlying pathological Internet use,"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1997.

Young, K. S.,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8.

Young, K. S., & Rodgers, R. C.,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 1, 1999, pp. 25-28.

최무진(Moo-Jin Choi)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DSS, IS 운영과 정책, e-비즈니스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한국산업경영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한국 의사결정학회 등에서 운영위원,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DSS, 그룹지원시스템, 전자상거래, 정보윤리 등이다.

구본희(Bon-Hee Goo)



경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경영학 석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정보전공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계명문화대학 국제통상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E-Learning의 동기 및 성과 등이다.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and Information Ethics : Centering on Self Characteristic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toward Internet

Bon-Hee Goo · Moo-Jin Choi

Recently, negative sides of internet, internet and/or game addiction and unethical behavior over internet, have been largely publicized in our society.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solutions, but these lack considering broader set of research variables.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d how i) internet users' self characteristics and ii) cognitive characteristics toward internet influence iii) internet addiction and iv) information ethics respectively.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ore mature beings tha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whom most other researches have dealt so far.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illingness to develop relationships over internet, usefulness of internet use, a degree to perceive the cyber space as real, and a degree to express self over interne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disabled life style. Self respect, willingness to develop relationships over internet, usefulness of internet use, a degree to perceive the cyber space as real, and capability of using interne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ck of control over internet. Willingness to develop relationships over internet, self control, and a degree to express self over interne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ck of control over internet.

2) Regarding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self characteristic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n information ethics through internet addiction factors, self respect, self control, a degree to perceive the cyber space as real, and capability of using internet have directly and indirectly significant effects on information ethics through internet addiction.

Then we suggested four approaches to reduce the internet addiction and improve the information ethics based on the findings.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Information Ethics, Self Characteristics

* 이 논문은 2006년 7월 26일 접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06년 9월 9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